이희호 여사 "베풀어준 사랑 감사"

서울광장 추모제 참석 대국민 메시지

운구행렬 고인 자취 따라 마지막 여정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마치고 고인의 체취와 숨결이 배어 있는 서울 시내 곳곳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김 전 대통령의 시신이 실린 영구차는 영결식 마지막 순서인 조총 발사가 마무리되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 오후 3시30분께 국회를 빠져나갔다. 28대의 경찰 사이드카와 선도차, 대형 태극기를 건 4대의 차량, 영정을 부착한 오픈카를 앞세우고 '마지막 나들이'에 나선 김 전 대통령의 영구차 뒤로는 미망인 이희호 여사 등 유족을 태운 승용차와 경호차량, 버스 7대가 뒤따랐다.

출발 5분여 만에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멈춰선 운구 행렬은 이희호 여사가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만나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다시 이동, 오후 3시47분 김 전 대통령이 고난의 정치인생을 살아온 동교동 사저에 도착했다.

김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은 이후 충정로와 서대문을 지나 세종로 네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우회전, 민주당 주최로 추모제가 열린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차에서 내린 이희호 여사는 대국민 인사말을 통해 "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국장 기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입원한 지난달 13일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병간호 때문에 쉬지 못했고, 서거일인 18일부터 엿새의 국장 기간에도 유족 대표로 자리를 지켰던 이 여사는 영결식장에서는 거의 탈진 상태로 보였지만 감사의 말과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편의 유지를 전할 때는 달랐다.

이 여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국장 기간에 여러분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또박또박 대국민 메시지를 이어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이 거행된 23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이희호 여사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여사는 "제 남편은 일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려 피나는 고통을 겪었다.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로지 인권과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남편이 추구한 화해와 용서의 정신, 평화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의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남편의 유지"라고 힘줘 말했다. 이 여사가 감사의 말을 끝내자 '함평 나비' 500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라 고인의 부활을 염원했다.

이후 운구 행렬은 서울역 광장에 잠시 멈춘 뒤 삼각지와 용산역을 거쳐 동작대교를 건너 안장식장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곧장 향했다. /연합뉴스

고향 하의도 흙 함께 묻혀

현충원 박 前대통령 묘 350m 떨어진 곳 안장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식을 마치고 영면했다.

김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묘역에는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묘'라고 새겨진 묘비가 나무로 임시 제작돼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화산암의 일종인 '오석'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5시께 운구행렬이 국립현충원에 도착한 후 태극기에 덮인 관은 묘역 하단에서 제단으로 봉송됐다.

이어 천주교 함세웅 신부, 불교 세민스님, 기독교 이해동 목사, 원불교 이선종 서울교구장이 순서대로 종교의식을 진행했다. 종교의식은 30분 정도 걸렸고,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다. 또 이희호 여사와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등 유가족,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 정부 관계자, 전직비서 등의 순서로 헌화, 분향을 마친 후 후 유가족과, 전직비서 등이 참여한 하관식이 이어졌다.

그리고 흙을 삽으로 뿌리는 허토 의식이 거행됐다. 허토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서 가져온 흙도 뿌려졌으며 묘역에는 고인의 일대기가 기록된 '지석'이 함께 묻혔다.

이 지석에는 김 전 대통령의 이름과 호, 성장과정을 비롯해 일본납치사건과 대통령 취임, 정상회담 등 그동안의 정치역정 등이 쓰여졌다. 또 퇴임 뒤 활동과 저서, 이희호 여사와의 결혼, 가족들의 이름 등 가족사도 모두 기록돼 있다. 하관과 허토 이후 의장대 조총으로 안장식은 모두 끝났다.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은 국가유공자 제1묘역 하단부에 자리를 잡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와는 100여m,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와는 350m 정도 떨어져 있다.

묘역 규모는 봉분과 비석, 상석, 추모비 등을 포함해 264㎡, 가로 세로 각각 16m정도이다. 예정에 없던 국가원수 묘역을 새로 조성하다 보니 이승만 전 대통령(1,650㎡)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3,600㎡)의 묘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3일 영결식을 마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신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대중 前 대통령 영결식 추도사 〈전문〉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의 선생님!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뵈올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난 세월 동안 한두 번이 아닌 죽음의 고비를 기적적으로 극복해 내신 대통령님이시기에 병세에 대한 보도와는 상관없이 '대통령님을 한 번만 더 돌려주시라는' 이희호 여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의심치 않고 있던 우리에게 서거의 비보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 있어서인가요.

대통령님의 서거는 우리에게 이별의 슬픔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과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을 풀어내는 화해와 통합의 바람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게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계인이 대통령님 영전에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갈라진 남과 북의 산하가 흐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꿈을 키웠던 저 남쪽 바다가 울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독재정권 아래에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총과 칼이 가슴을 겨누어도 님께서는 의연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숱한 투옥, 망명, 연금을 당하시고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험한 곳에 계셨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은 강철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믿음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는 힘이 되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 살펴보니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과연 누가 산보다 우람한 거목이 떠나간 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대 원로를 잃은 우리는 이제 나라의 큰일이 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입니까.

당신께서 떠나니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 번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았던 진정한 민주투사였습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불굴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외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남과 북의 미움을 녹여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용서와 화해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은 버마, 동티모르 등 세계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과 북의 화해를 이뤄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용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셨습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늘 곁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당신의 피와 눈물 속에 피어났습니다. 당신께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신이 일구어낸 민주 사회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열었습니다. (중략)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선생님.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마지막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말씀대로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당신이 곁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지난날들은 진정 위대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김대중이란 이름은 불멸할 것이니 이제 역사 속에서 쉬십시오. 대통령님, 당신의 국민들이 울고 있으니 하늘나라에서라도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김대중이 없는 시대가 실로 두렵지만 이제 놓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벌써 그립습니다.

늘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생님, 이제 그 존경과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지난날은 진정 고단했으니, 부디 편히 쉬십시오.

박영숙〈前 평민당 부총재〉